

## 청능사 뉴스 레터

2018.4.5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회원님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바라며 금년 1월에 보내드렸던 소식지 이후에의 주요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3월까지도 무엇보다도 국가자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아울러 회원권의 보호를 위하여 창립한 한국청능사협회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그동안의 세부적인 활동들은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금년 3월 23일 청능사 자격관련 법안을 국회의원 16명의 동의하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협조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회원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청능사 뿐만 아니라 난청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함께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각학과 청각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본 협회는 임원과 전국 16개 지부를 구성하였고, 보다 나은 보수교육 제공과 회원관리 시스템 제공 및 지도검색을 통한 청능사 홍보와 배너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며, 4월 5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하여 그동안 미루어왔던 청협으로의 회원가입을 시작합니다([www.audiologist.or.kr](http://www.audiologist.or.kr)). 또한 별도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 보수교육 시스템을 5월까지 청협 홈페이지로 개선 통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청능사 자격증 미유자분들에게 자격증 회복의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작년부턴 금년 2월말까지 시행하였던 탕감정책을 내년 2월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협 회원가입과 홈페이지에서의 개별적인 청능사 홍보방법 및 자격증 회복 탕감시행 관련 사항들은 별첨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장애등급판정과 보청기 지원금 급여 과정에서 일부 청능사와 일부 이비인후과 의사의 정도를 벗어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소식을 정부기관과 주변 청능사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청각관리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청능사와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능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각관리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비인후과 학회측에서도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능사 협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시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접수 후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의 긍지를 가지고 각자의 역량을 키우면 난청인과 청능사 및 관련 분야에 도움이 되는 국가자격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이사님들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별첨 : 청협 홈페이지 오픈 및 회원가입 안내문  
만료 자격증 회복조치 안내문

한국청능사협회장

